컴컴한 쪽방촌 문 활짝 연 까닭은…

그대는 자비보살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

변변한 공간도, 정기적인 후원도 없이 18년 간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돕길 주저 말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이들이 있다. 쪽방촌 도우미봉사회다. 건물 옥상 임시천막, 가건물 등서 근근이 급식 조리를 이어왔지만 단 한 번도 '그만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다.

"아무 욕심 없으니 제발 쪽방촌 주민들을 계속 도울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게 쪽방촌도우미봉사회 박부득 팀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사회 가장 외진 곳서 묵묵히 자비행을 펼쳐온 그들을 만났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가 10월 20일 제16회 쪽방주민위안잔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조계사붓다맘, 보현의집, 해군 통해사, 대관음사불교대학 등 소속 불자 40여명이 봉사행을 펼쳤다.

'국수 한 그릇'서 오간 사람사이 情

오피스텔과 백화점이 즐비한 영등포 시가지.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24시간 다망하다. 최근엔 '뉴타운'이란 이름 아래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며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쪽방촌 주민들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다.

영등포역 6번 출구를 나와 왼쪽 길을 따라 걸으면 쪽방촌 초입에 들어선다. 그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될 것을 마을 입구를 알리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란 팻말 아래서 괜스레 침을 꼴깍, 긴장된 마음에 발길을 주저한다.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거늘 제 아는지 모르는지, 보이지 않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애꿎은 팻말을 탓하며 다시 한 걸음 떼어본다.

10월 20일 영등포 쪽방촌을 찾았다. 이곳서 18년 간 봉사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팀장 박부득, 이하 쪽방도우미회)를 만나기 위해서다. 매년 가을 열리는 쪽방주민위안잔치가 개최된 이날도 쪽방도우미회를 비롯해 조계사붓다맘, 보현의집, 해군 통해사, 대관음사불교대학 등서 4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쪽방도우미회는 조계사 붓다맘봉사회의 전신이다. 1999년 당시 소년원 업무를 담당하며 삼동소년촌서 봉사행을 펼치던 강서경찰서 소속 김윤석 경위(당시 마포경찰서 강력4반 소속)와 박부득 팀장이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반인들이 쉽사리 찾지 않는 쪽방촌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급식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을까.

박 팀장은 "도움 필요한 곳에 불자로서 밥 한 끼 나누는 게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김 경위님을 알기 전부터 조계사 신도들과 함께 곳곳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저 '도움이 더 절실한 곳은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김 경위님을 만난 겁니다."

처음부터 급식배달을 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엔 10가구 남짓 독거노인들에게 쌀 20kg과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반찬은커녕 밥 지어먹을 냄비조차 없던 쪽방촌 주민들에게 쌀은 무용지물과 다름없었다. 이에 쪽방도우미회는 길거리에 버너와 후라이팬을 펼치고 앉아 밥을 짓고 멸치를 볶아냈다.

"그러다 구(舊) 당산파출소 옥상에 자리 잡고 17년간 급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건물이 철거되며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 쓸 돈이 없으니 발품 팔아 자재를 모으고, 우리가 직접 쪽방촌 한편에 주방시설과 법당을 만들었어요."

그마저도 가건물로 급히 만들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 쪽방도우미회는 외줄타기하듯 급식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매주 목요일 급식을 만들 수 있단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1999년 '쪽방' 봉사활동 공식 시작
사회 곳곳서 자비행 펼치던
박부득 팀장, 김윤석 경위 만나
舊파출소 옥상서 17년 급식 나눔
정기 후원 없지만 전국서 재료 보시

"한 주 급식을 만드는 데 재료비가 약 150만원 들어요. 어쩔 땐 통장잔고가 부족해 '이번 주는 밥을 할 수 있으려나' 걱정하는데, 신기하게도 매주 전국 각지서 많은 분들이 황태, 쌀, 국수, 냉면 등 재료를 보시해주세요. 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보내주시는 정성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급식메뉴 중 단연 최고 인기는 바로 국수다. 주민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 받아들면 그보다 행복할 수 없다며 미소 짓는다.

자신을 전과자라 밝힌 쪽방촌 주민 오OO(46·남) 씨는 "쪽방도우미회가 오는 목요일만 기다린다. 국수가 여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다"며 "처음엔 세상에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있단 사실에 행복하다. 덕분에 불교도 깊이 공부하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배식준비로 여기저기 분주한 쪽방도우미회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오 씨를 보며, 쪽방도우미회가 나눈 것은 배를 불리는 국수 한 그릇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이오, 진심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쪽방촌 주민들의 아들, 딸이 되다

세월이 세월인 만큼 쪽방촌도우미회는 주민들에게 아들딸이자 형님이고, 누나다. 혹여 밥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가는 뒷모습을 돌이켜 '밥 먹었냐'고 다시 한 차례 확인받는 박 팀장의 모습은 다 큰 동생 챙기는 누이 같다. 20년 세월동안 주민들과 나눈 희로애락도 많았을 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언지 물었다.

"조OO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2층 다락방에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다 3년쯤 지났나. 그날도 급식 준비로 영등포 시장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어느 날 누가 좋은 곳에 살게 해준다며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린 나쁜 사람이었어요."

박 팀장과 김 경위는 그 길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쪽방으로 돌아왔다. 비좁고 지저분한 공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편안한 웃음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오래 집을 떠나있던 탓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인천 어귀 요양원에 모시고, 틈틈이 찾아뵀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락 드리던 목요일만 되면 간호사를 통해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박 팀장의 말끝이 흐려졌다. 여느 목요일에도 급식 배달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가 또 우리 보고 싶다 찾나보다'며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가셨단 소식이었다.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도우미 17년 자비온정



쪽방촌도우미봉사회원들이 특식으로 마련된 육개장 배식 준비로 분주하다.



이날 재능기부로 사물놀이를 펼친 해오름예술단과 조계사 포교국장 서송 스님(사진 뒷줄 가운데), 김윤석 경위(사진 뒷줄서 맨 왼쪽) 모습.



쪽방촌도우미회는 19년간 舊 당산파출소 옥상서 급식을 준비하다, 지난해 영등포 쪽방촌 내 가건물로 이주했다.

"쓸쓸히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더욱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도리겠지요."

이처럼 쪽방도우미회는 급식 배달 뿐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도배 · 김장 ·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다. 어버이날엔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린다. 이 때문에 목요일로 봉사활동일이 정해져있지만 거의 매일 쪽방촌을 찾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주민들도 '누님', '형님'하며 가족처럼 의지하는 사이가 됐다. 특히 김 경위는 마을주민들에게 '큰 아들'과 '큰 형' 역할을 맡고 있다.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이름까지 다 알만큼 한 식구처럼 지내요. 20년이면 그야말로 가족과 마찬가지죠. 다른 위안잔치를 가면 혹여 사고날까봐 술을 주지 않는 곳도 많은데, 저희는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도 나눠줍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정이죠."

잔칫날인 만큼 특식으로 육개장이 준비된 이날도 주민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집중했다. 반면 쪽방도우미회는 그 누구도 한 자리에 가만 서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일반 무료급식 현장과 달리 길게 늘어선 배식 줄이 없단 것이었다. 주민들은 번호표를 받아 자리서 기다릴 뿐 봉사자들이 밥과 반찬, 국이 담긴 식판을 직접 자리까지 옮겼다. 한 두 명도 아닌 몇 백 명의 급식판을 나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박 팀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주민들 중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뜨거운 음식을 스스로 옮기기가 어디 쉽나요. 그저 어르신들이 편한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처음부터 직접 가져다드리게 됐습니다."

불자들 한 데 모이니 그곳이 '불국토'

"서송 스님과 도반이에요", "불교대학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김 형사님 통해 알게 돼 함께 왔어요."

이날 전국 각지서 모여든 봉사자들에게 쪽방도우미회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묻자 열이면 열 같은 대답을 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이 많은 불자들이 모인 것은 '도반이 좋은 일을 한다기에'가 유일한 이유였다. 혼자선 선뜻 마음내기 어렵지만, 불자들이 한 데 모이니 못할 일이 없었다.

쪽방도우미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계사 붓다맘봉사회는 이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준비했다. 조계사 포교국장이자 붓다맘봉사회 지도법사인 서송 스님은 "말로만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우리 신도들이 매주 목요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될 때마다

친구 따라 불국토 가다

연례행사 때마다 많은 봉사자 필요

'좋은 일은 함께' 불자들 모여

대관음사 · 보현의집 등서 동참

"많은 스님들도 함께해주길"

함께한다"고 말했다. 이날 육개장 배식을 맡은 서송 스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신도들과 좋은 일을 함께한단 사실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해군 통해사는 서송 스님과 도반인 영범 스님이 신도들의 손을 잡고 이날 처음 함께했다. '영등포서 불자들이 좋은 일을 한다더라'는 말에 순식간에 20여명의 봉사자가 모집됐다.

서송 스님 옆에서 함께 육개장 배식을 하던 영범 스님은 "힘들지만 부처님 정법대로 살아가는 불자들을 보니 오히려 힘이 난다"며 "좋은 사람 옆엔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다. 앞으로도 쪽방도우미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대관음사불교대학은 올 7월부터 함께하게 돼 매주 5명 정도의 고정멤버가 생겼다. 대공화(법명 · 69) 보살은 "퇴직 후 불교공부나 해보잔 생각으로 신행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도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며 "처음엔 쪽방촌으로 들어서는 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열악한 환경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귀한 존재들 아니겠느냐"고 웃어보였다.

3년 간 쪽방도우미회 활동을 이어온 안소연(56) 씨는 이날 불교대학 1학년 도반 안병학(55) 씨의 손을 이끌고 함께했다. 책으로 배운 부처님 정법을 봉사로 실천하는 데, 도반이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각각 수건 1000장과 후원금을 지원해 쪽방도우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앞으로도 공부와 봉사행을 이어나갈 거예요. 좋은 날, 좋은 일을 도반과 함께하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네요."

아울러 이날 주민들의 흥을 돋운 해오름예술단은 매년 위안잔치마다 재능기부로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다. 송지식 단장은 "김 경위님과 인연으로 좋은 일을 함께하게 돼 단원들도 매우 행복해한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쪽방도우미회와 함께할 것"이라 전했다.

이처럼 함께 자비행을 펼치며 행복해하는 불자들을 보며 김 경위는 뿌듯하고도 감사하다고 한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할지 몰라 포기하는 불자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쪽방촌 봉사활동을 가자'하면 선뜻 나서주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들을 모아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단 사실만으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특히 박 팀장은 재가자들의 자비행에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들이 좋은 일에 나서면 더 많은 불자들이 따를 것이란 게 이유였다.

"쪽방촌은 다른 곳보다 더욱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큰마음을 내지 않으면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먼저 원력을 세우고 함께해주시면, 세상에 더 많은 보살님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지혜란 무엇인가 ②

제대로 알고 볼 때 지혜 열려

우리들의 삶은 '감각기관'의 문(門)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대상'을 마주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인도인들은 감각기관의 존재를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에서 '인드리야'(Indriya)라고 불렀다. 이 말은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인드라(Indra, 帝釋天)와 유사한'이라는 뜻이다.

인드라신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 문헌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감각기관이란 마치 인드라신이 출현하여 비를 내려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는 발상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 말을 '뿌리'(根)로 옮겼다. '외부의 대상세계'(境)를 아는 작용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꾸려가는 '뿌리'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인드라신과 유사한 이 감각기관을 여섯으로 파악하였다.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의식(識)'이다. 이 여섯의 문은 제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눈은 '보인 것'(色), 귀는 '들린 것'(聲), 코는 '냄새난 것'(香), 혀는 '맛본 것'(味), 몸은 '감촉된 것'(觸), 의식은 '인식된 것'(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들은 불교경전을 한역하면서 '여섯 감각기관'(六根)이 각각 받아들이는 여섯 가지 대상을 육경(六境)이라고 옮겼다. '감각대상'(境)에 해당하는 팔리어 원어는 'visaya'인데, 팔리어 사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그 어원을 동사어근 'viṣ(움직이다 · 활동하다 · 붙잡다 · 받아들이다 · 먹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한다.

이 풀이에 따르면, '대상세계'(境)란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감각기관으로 붙잡아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장소, 지역, 영역, 경계'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이를 '경(境)'으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이 '각각의 대상세계'(六境)를 만나 이루어지는 '열두 가지를 토대로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十二處)을 '모든 것'(一切)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一切)은 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우리의 감각기관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각된 것, 의식된 것, 인식된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인간들의 삶의 질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니까야/아함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열두 가지 영역을 그 범위로 한다. 〈잡아함〉 제319경의 서술에 나오듯이, 이 열두 가지 영역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말일 뿐 앎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써 알아야 할 대상 세계는 지금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감각기관이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너석들이다. '행위 단속의 영역'(戒學)과 '명상의 영역'(定學)이 '갖가지 감각기관의 지킴'(諸根守護)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지혜의 영역'(慧學)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대상 세계의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면 명상을 잘 닦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율만 잘 지키면 명상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상은 지혜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이지 그 자체가 만능열쇠나 자동열쇠는 아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대상세계를 제대로 보고 아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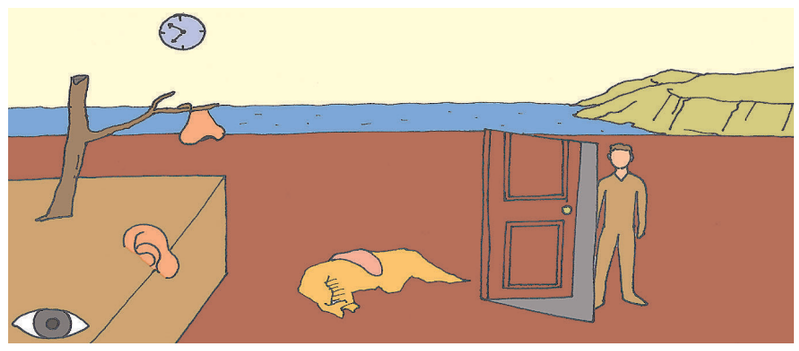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